

김정은 시대의 인민반에 관한 연구

배영애*

I. 서론

II. 북한 인민반의 제도화와 조직체계

III. 북한 인민반 조직의 역할 및 기능

IV. 김정은 시대 인민반 조직의 특성

V.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에 인민반이 어떻게 작동되고 운영이 되는지를 고찰하여 북한 체제의 변동에 따른 인민반의 실태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북한 주민들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성별, 연령, 계층,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망라하는 가장 큰 조직이 바로 인민반이다. 북한의 인민반은 노동당과 국가정책을 관철하고 집행하며,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스며있는 공간이자 그들의 사적인 영역의 세밀한 부분까지 공권력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포괄적인 기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은 공동체적 구성과 유대감의 형성, 당과 국가기관에서 하달되는 사회적 과제와 사회동원,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 관리와 통제 등 체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침체된 인민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민반의 세대수의 규모를 축소하여 조직을 재편성하였으며, 인민반장이 인민반 사업에 집중

하고 의욕을 높이고자 월급인상, 격려금 지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인민반의 경비초소를 북한 전 지역에 설치하여 24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민반의 매일 점검과 비상연락망의 도입, 소비지출(경제수준)과 비사행위의 상시적 검열 등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통제는 한층 더 엄격하고 집요해지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생산책임제가 도입되어 사회적 과제와 각종 동원이 기업소와 공장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운영되면서, 각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동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 이후 국가의 재정난과 경제적 자원의 부족한 면을 인민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제유지에 도모하고 있다.

주제어: 인민반, 공동체, 사회적 과제, 사회동원, 생활통제

* 서울대학교 강사

I. 서론

북한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전 생애과정에 걸쳐서 주민들의 조직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유아기에는 출생 후 3개월이 지나면 탁아소에 나가게 되면서 집단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공식적인 조직생활은 소학교 2학년부턴 조선소년단을 시작하여 이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거쳐서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등에서 조직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이런 근로단체에서 조직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조직이 있는데, 바로 인민반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없었고, 오직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인민반은 매우 독특한 조직으로 실제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부분의 조직들은 연령과 성별, 직업, 결혼의 여부에 따라 구성되지만, 인민반은 성별, 연령, 계층,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을 망라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민반은 집단주의 구현과 체제유지를 위해 가장 규모가 크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인민반처럼 동사무소 산하에 일정한 규모의 가구를 묶어 조직한 통/반 제도가 있으며, 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조직이다. 우리의 통장이나 반장은 동네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통장이나 반장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인민반은 세대별 가족단위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이며, 정치와 사회가 행정조직과 결합한 특유의 제도이다. 특히 인민반장은 해당 인민반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이며, 주민들에게 있어 존재감과 권한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반장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북한에서는 인민반을 ‘노동당과 국가정책을 관철하고, 국가사업을 집행하는 일정한 규모의 가구를 묶어 조직한 국가 사회생활에서의 기초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¹ 이처럼 북한의 인민반은 국가 공권력의 개입과 노동당 정책의 집행이 제도화 되었으며,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이며, 그들의 사적인 영역의 세밀한 부분까지

¹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294.

II. 북한 인민반의 제도화와 조직체계

1. 인민반 제도화의 과정

인민반 제도의 확립은 1974년에 5호담당제의 전환에서 시작되었다.³ 북한에서는 정권 초기까지 유지되었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1955년 공민신분등록제로 바꾸어 봉건적인 가족제도의 잔재를 제거하였다.⁴ 특히 공민신분등록 사업을 사회안전부에서 담당함으로써 주민들의 동태를 조직적으로 감시했고, 체제에 반감이 있는 불순세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제도인 5호담당제를 1958년에 신설하게 되었다. 5호담당제는 1957년 5월 30일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전당, 전인민적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라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1958년 7월 김일성의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주민선전실 현지지도에서 “유급간부 1명이 5호 가구만 책임지고, 교양사업과 경제과업 등 일체를 지도하여 리 사업을 일으켜 세우며, 리 당위원회에서 이들을 모아서 과업을 제시하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면 일이 잘 해결된다.”⁵라고 교시함으로써 1958년 12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5호담당제는 북한의 모든 세대를 5호 단위로 나누어서 열성당원 1명을 5호담당 선전원으로 지정하여 나머지 4세대를 감시하며, 각 세대의 일상생활부터 사상동향 등 일거일동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이다. 보통 5호담당 선전원은 열성당원이나 학교교원에서 임명하며, 5가구 구성원들의 사상교양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이며, 당의 감시를 합법화한 주민통제라고 할 수 있다. 5호담당제는 도입 초기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5호담당 선전원의 자질 부족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⁶ 1962년 이후 5호담당제는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 지역의 요새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노농적위대> 조직의 신설과 함께 각 가정에서는 붉은가정창조운동⁷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5호담당제가 한층

³ 조병영, “북한의 주민통제정책,” 『순천대학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7권 (1988), p. 128.

⁴ 이재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2017), pp. 155~156.

⁵ “군중교양의 힘 있는 방법-5호 담당제: 창성군 약수리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67.9.13.

⁶ 위의 신문에서 “수준이 낮아 처음은 5호담당 선전원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던 동무들도 이제는 담당하는 5호 내 군중들을 훌륭하게 교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5호담당제가 처음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⁷ ‘붉은가정창조운동’은 북한 전역의 감시와 통제하는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였다. 각 세대가 가족

강화되어 북한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5호담당 선전원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다.

5호담당제는 각 가정부터 직장에서의 모든 행동까지 감시, 통제수단으로 발전했다. 5호담당제의 지도 내용으로는 5호담당 선전원은 5호의 적은 세대를 분담하는 만큼 매 가정, 각 개인들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지식, 취미, 소질, 희망, 사상동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도하며, 생산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성인부터 아동까지 모든 부분을 포괄해야 한다고 명시한다.⁸ 5호담당제는 1974년부터 주민통제 강화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연대 책임이 5호에서 10호로 늘어나게 되었고, 시·도에는 인민반, 농촌에서는 분조담당제로 전환되었다.⁹ 이렇게 북한의 인민반 제도의 확립은 5호담당제의 전환에 의해 1974년부터 시작되었고, 5호담당선전원은 인민반장으로 변경되었다.

2. 인민반 조직의 구성과 체계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에서 인민반은 ‘주민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망라하고 (리·읍·노동자구·동)밑에 조직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다 인민반으로 소속된다.’라고 정의한다.¹⁰ 2010년 처음 제정된 북한의 주민행정법 제9조에서 인민반은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생활의 거점’이라고 명시한다.¹¹ 이처럼 북한에서 거주 등록된 주민이라면 지위와 계층, 성별과 아이부터 노인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인민반에 소속되어야 한다. 인민반의 세대수 기준은 내각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민반의 규모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 1개의 인민반에는 30~40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0년 중반부터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도시의 인구 밀집화로 인하여 인민반이 40~50세대로 개편되기도 했으며, 대도시의 아파트 1동에 70~80세대가 거주하게 되면 거주민들은 1개의 인민반에 모두 소속되기도 한다.¹²

회의를 하게 되면, 5호담당선전원이 참석하여 부모와 자식이 서로 총화를 하는 것을 검열하게 된다. 이항구, 『북한의 현실』 (서울: 신태양사, 1988), p. 181.

⁸ 북한연구소편, 『北韓社會論』 (서울: 북한연구소, 1977), p. 221.

⁹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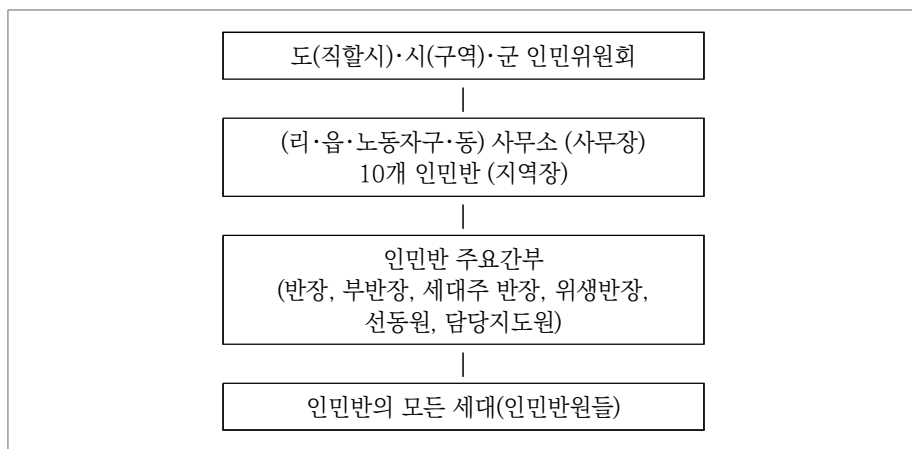
¹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654.

¹¹ “2020년 북한법령집 상권,” 2020.10.5. <https://www.nis.go.kr:4016/resources/down/2020_north_law_01.pdf> (검색일: 2020.10.10.).

¹² 김석향,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교육원, 2004), p. 262.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의 직접적 담당이며, 주민지역에서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망라하여 인민반을 조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래에 (리·읍·노동자구·동)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다. 1개의 (리·읍·노동자구·동)사무소는 각급 인민위원회의 주민행정사업의 최말단 집행기관이다. 1개의 사무소에는 30~40개의 인민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무소의 책임자는 사무장이다. 인민반의 책임자인 인민반장은 (리·읍·노동자구·동) 사무소의 행정업무를 보조 및 지원한다. 한편 인민반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리·읍·노동자구·동) 사무소에서는 10개의 인민반을 묶어서 1명의 지역장을 두고 관리한다.¹³ 보통 인민위원회 행정지도과에서 당의 방침을 사무장에게 하달하면, (리·읍·노동자구·동) 사무소의 사무장과 인민반의 지역장이 인민반장에게 그 방침의 전달, 행정업무를 지시, 관리하는 체계이다.¹⁴ 마지막으로 인민반장은 동네의 인민반원들에게 방침과 정책 사업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 <그림 1>은 인민반 조직의 체계이다.

<그림 1> 인민반 조직의 체계



출처: 임도빈 외, “북한의 지방행정 두텁게 이해하기-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2), p. 9; “2020년 북한법령집 상권,” 2020.10.5. <https://www.nis.go.kr:4016/resources/down/2020_north_law_01.pdf> (검색일: 2020.10.10.)을 참고하여 작성함.

¹³ 북한이탈주민 J 인터뷰(2020.1.16., 서울).

¹⁴ 임도빈 외, “북한의 지방행정 두텁게 이해하기-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2), p. 9.

인민반의 안에는 인민반장과 부반장,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담당지도원(보안원, 보위원) 그리고 반원들(모든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반장은 주민의 진출과 진입, 분배, 동원, 사상교양, 위생과 환경정리, 살림집관리 등 모든 인민반의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총책임자이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에서는 인민반장의 역할을 “인민반장이 우리의 당정책을 잘 알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며 매 가정의 형편을 구체적인 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꿰뚫고 반원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다.”¹⁵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반장은 동네의 각 세대에게 과제전달, 노력동원, 가정문제, 마을 거리청소, 사건사고 전파 등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고 동사무소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어요.”¹⁶

인민반장과 부반장은 인민반회의에서 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주민행정부 제10조), 인민위원회에서 임명을 하여 동사무장이 인민반의 반원들을 모아 선포한다. 인민반장은 대부분 직장이 없는 가두여성이 맡으며, 성분이 좋은 당원인 여성이거나 당이나 국가기관 간부의 부인들이 선출되기도 한다. 인민반 사업이 중요하고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매달 보수를 인민반장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도시의 인민반장이 조금 더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민반장은 인민반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생필품 배정과 공급권한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인민반의 부반장은 2010년 북한의 주민행정부의 제정으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으며,¹⁷ 그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세대주반장은 인민반에 소속된 세대주(남편들)만 관리하기 위해 남자가 맡고 있으며, 노동당에서 직접 임명한다. 그 역할은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강연회, 동원, 세대주회의를 열고, 선거 때 각 세대주의 출근상황과 퇴근 이후의 동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특이하게도 평양에서 세대주 반장제가 더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타 지역들과 달리 평양은 모든 주요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의 실적이나 충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살림집을 배정하기

¹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654.

¹⁶ 북한이탈주민 L 인터뷰(2019.11.20., 서울).

¹⁷ 이규창,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정비와 체제유지』(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2.

때문에 대부분 ‘기관고층 살림집’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세대주 반장은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의 지시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발단은 노동당 고위 간부가 퇴근 후 집에서 음주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간부들은 직장에 출근해서 간부만이 아니라 퇴근 이후에도 간부의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고층 살림집 내에 별도로 세대주들을 관리와 감독하는 세대주 반장을 따로 마련했으며, 나중에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¹⁸ 특히 세대주 반장은 인민반 안에서 힘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세대주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인민반에서 세대주 반장은 반원들이 어려운 과제가 떨어졌을 때 각 세대주를 모아요, 그리고 ‘세대주들이 조금씩 분담하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반장이 힘이 있어야 동원하기 쉬워줘요. 세대주 반장이 힘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큰 공사 같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 반원들의 부담이 커져서 힘들어지죠.”¹⁹

위생반장은 주로 젊은 사람이 맡으며, 인민반의 환경과 위생관리자이다. 인민반의 모든 거리, 마을의 청결과 각 세대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집행한다. 선동원은 인민반의 당원들로 구성된 당분조의 조장이며,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담당한다. 그 이외에도 담당지도원이라는 명칭으로 국가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에서 배치한 보위원과 보안원이 비밀정보원이며, 인민반마다 소속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²⁰ 이들은 인민반 내의 외부인에 대한 조사, 특히 불순분자들의 침입 여부와 이들이 주민들과 만나는데 대한 동태를 조사하고, 인민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를 파악하며, 직접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한편 인민반의 주민들 중에서 직장이 없는 당원들이 있으면, 이들은 별도로 당세포를 만들어 당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 인민반에서 당원들의 숫자는 많지 않은데, 연로보장 대상자인 당원이나 드물게 당에 입당한 가두여성들이 당세포를 구성한다.²¹ 그 외에 노인들도 노인분조를 만들어 인민반 내에서 조직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인민반의 가두여성들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에 속해서 별도로 활동을 한다.

¹⁸ 통일교육원, 『북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 (서울: 통일교육원, 2012), p. 7.

¹⁹ 북한이탈주민 S 인터뷰(2019.11.29., 서울).

²⁰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p. 138~139.

²¹ 김석향,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p. 262~263.

Ⅲ. 북한 인민반 조직의 역할 및 기능

1. 공동체적 구성과 유대감의 형성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인민반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됨으로써 집단주의 가치가 철저하게 구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도보 30분> 이내라는 원칙에 따라 직장 가까이에 주택을 배정하여 통근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또 주택공급 부족의 해소를 위해 하모니카 주택²²이나 고층살림집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는 주민들을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이라는 구조에서 인민반은 마을 단위로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적 생활양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과 주거지 근접과 생활의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²³ 이렇게 밀집된 북한의 공동주택은 공동수도나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집의 사정을 서로 알게 된다.

“인민반에 살다보면 이웃집 생활형편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여러 가구가 쪼르륵 붙어 있는데, 이웃집 사정을 알고 싶어도 누구 집에서 부부싸움을 왜 했는지, 누구 집에서 무슨 일을 해서 벌어들여 먹고 사는지, 누구 집에 손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알아요, 누구집의 삼살개가 왜 죽었는지 까지 알게 되요.”²⁴

이러한 공동주택의 구조 속에서 인민반의 반원들 간에는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되며, 거동이나 동태를 파악할 수도 있어 서로 경계하는 이중적인 관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공동주택이라는 집단 주거지는 주민들에게 생활적 편리와 노동력 동원의 제고를 위한 것도 있고, 인민반 조직편성에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공동체주의를 실현하고, 제도적으로 국가공권력의 개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민반은 공동체적 구조에서 사생활 등을 포함한

²² 단층의 집들이 일자로 여러 가구가 붙어 있어 하모니카와 비슷해 보이는 연립주택이며, 북한 주민들은 토끼집, 줄사택이라고 부른다. 북한이탈주민 H 인터뷰(2020.1.14., 서울).

²³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283~285.

²⁴ 북한이탈주민 H 인터뷰(2020.1.14., 서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희로애락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도 한다. 특히 인민반장과 주민들 간에 관계를 잘 맺으면서 인민반장의 리더십에 따라 인민반의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불편해지기도 하여 인민반의 유대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민반장과 반원들과 사이가 좋은 경우, 가족같이 잘 지내기도 합니다. 누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인민반장이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쌀과 돈을 모으기도 하고, 음식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동네잔치를 해요. … 누구 집에 초상이 나면 주민들이 부조금을 조금씩 내기도 하고, 맞벌이 부부가 늦게 퇴근하게 되면 반원들이 그 집의 아이를 돌봐주기도 합니다.”²⁵

북한의 인민반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눈여겨 볼만하다.²⁶ 한편 북한의 인민반은 국가 내에서 관료제적 조직체계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침투해서 위로부터의 관리를 하는 공식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이라는 공동체적 삶에 익숙되면서 자발적으로 조직에 순응하게 되며, 능력보다 안면관계에 힘쓰고, 서로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의존하게 된다.²⁷ 또한 북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평생 거주하는 생활방식은 주변 이웃들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열악한 생활조건과 환경의 긴장 속에서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며, 상호의존성을 높인다. 북한의 주민들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할 수밖에 없으며, 주변이웃 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인 구조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민반은 간부, 당원, 남녀노소 등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기초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은 필요에 의해 조직화된 관계의 형성과 의존을 통해서 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북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민반의 조직생활을 매우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 속에서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인다.

²⁵ 북한이탈주민 K1 인터뷰(2019.12.11., 서울).

²⁶ 홍범식, “평양 대동강구역 청류3동 53 인민반을 찾아서: “우리야 한 식솔이나 같은 걸요,” 『민족21』 통권 44호 (2004), p. 99.

²⁷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pp. 156-157.

2. 사회적 과제의 수행과 사회동원

북한의 인민반은 당과 국가기관에서 하달되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이바지를 위해 자발성과 헌신을 강조한다. 먼저 북한 전역의 인민반은 <유휴자재 모우기>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유휴자재는 이용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자재를 의미하며,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파철, 파동, 파유리, 파지, 폐비닐, 헌옷, 빈병 등을 할당량에 맞게 수집하여 수매상점(수매분점)에 가져다 내야 한다.²⁸ 각 동사무소는 인민반별로 수매실적을 그래프로 표시해서 경쟁을 부추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인민반에서 수집한 유휴자재 등을 활용하여 생산운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모든 인민반마다 직업이 없는 가두여성과 노인들이 조직된 가내작업반에서는 유휴자재를 활용해 간단한 인민소비품을 만들어 상점에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인민반이 수행하는 중요한 과제가 <외화벌이 사업>이 있다. 개가죽, 토끼가죽, 누에고치, 송홧가루 수집, 송이버섯·곰취·고사리 등의 산나물과 약초 채취, 오징어·꽃게·해삼 등 해산물 공출을 통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이 된다.

또 인민반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동네와 거리 꾸리기> 과제가 있다. 동네와 거리를 항상 알뜰하게 꾸리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물론 모든 인민반에서 ‘꾸리기’를 위한 모든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필요한 비용을 인민반장이 배정해 준다. <동네와 거리 꾸리기>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청소, 거리청소와 보수, 놀이터 청소, 공원 청소, 살림집 청소와 보수, 잡초 뽑기, 배수로 청소와 보수 등이 있다.²⁹ 이 과제는 매해 겨울이 끝난 3월 말부터 시작되어 봄과 가을에 주로 집중되는데, 담당청소구역을 정해서 진행된다. 이 시기에는 매일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호출하며, 출근 전 또는 일요일에 동네 주민이라면 참석해야 한다.

“인민반장이 새벽에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깨웁니다. 거리청소를 나가면, 빗자루를 대충 쓸고 닦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알이 떨어져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걸레와 비누, 물로 자기가 사는 집의 방처럼 아주 깨끗하게 닦고 검열도 받아야 됩니다.”³⁰

²⁸ 강지연, “우리 인민반: 눈물로 쓴 탈북민 수기,” 『북한』, 통권 516호 (2014), pp. 162~163.

²⁹ 김연지, “봄을 맞는 북한 주민들의 삶,” 『북한』, 통권 544호 (2017), p. 110.

³⁰ 북한이탈주민 H 인터뷰(2020.1.14., 서울).

인민반에서 맡고 있는 주된 사회적 과제는 물자지원과 사회동원이 있다. 인민반은 군대물자지원, 농촌 물자지원, 건설현장 물자지원 등을 해야 하며, 지원대상과 시기별로 해당 과제가 내려온다. 그다음 인민반에서 세대별로 물자지원 대상과 지원물자 내역들을 할당하고 의무적으로 징발한다. 만약 세대별로 할당된 지원 물자를 내지 않을 때에는 인민반장이 해당 집을 방문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니면 현금으로 대신 내야 한다.

북한에서는 군대지원물자를 원호물자라고도 하며, 국가를 보위하는 군인들을 도와주며 보살피기 위해 지원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내복, 비누, 수건, 치약, 칫솔, 바늘, 손거울, 실, 영양제, 보약, 떡, 도시락, 돼지 등 모두 36가지에 달하며, 5가지 이상을 꼭 지원해야 한다. 지원 시기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인민군 창건일에 각 인민반별로 물자를 징발하여 군부대를 방문하게 된다. 건설현장의 물자지원은 주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인민반에서는 안전모, 시멘트, 삽, 장갑, 철강재, 목도채(나무 몽둥이), 모래, 목재, 곡괭이, 자갈, 페인트 등 물자지원이나 식량, 된장, 김치 등의 부식지원을 한다.³¹

인민반의 농촌지원 물자는 협동농장에서 농업생산과 관련된 물자들이며, 분토, 낫, 호미, 트랙터부속품, 장갑 등이 있고, 특히 비료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비료 대용으로 분토(인분과 가축의 배설물, 연탄재, 흙, 짚, 풀 등을 섞어서 만든 거름)를 겨울에 인민반별로 수거해서 봄철에 농촌으로 보내는데, 1~2월에 퇴비전투라는 구호를 사용할 정도로 중요하다. 추운 겨울에 각 세대마다 30~40kg의 분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인민반의 과제 중에서 분토를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언급했다.

“인민반 과제 중에서 제일 골 아픈 게 분토를 내는 겁니다. 흙이나 연탄재, 짚을 인분에 섞어서 연탄불에 철판을 올려놓고 거기에 구워요. 그러면 건조가 되고 분토를 착착 모아서 할당된 무게를 맞추고 인민반장에게 갖다 냅니다. 한 겨울 농촌에 보낼 분토를 만드는 것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추워서 문도 못 여는데 집집마다 분토 굽는 냄새가 배어서 너무 힘들었어요.”³²

³¹ 김승철·박선영, “평양시 인민반 운영실태와 주민생활,” 『북한』, 통권 412호 (2006), p. 190.

³² 북한이탈주민 J 인터뷰(2020.1.16., 서울).

인민반의 대부분 사회동원은 농촌지원전투, 건설현장 동원 등이 있다. 직장인들은 출근해야 하고, 학생들은 등교로 인해, 대부분 사회동원은 직장을 가지 않는 가두여성들과 연로보장 노인들이 할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은 주로 새벽에 1~2시간 마을과 거리 청소에 동원되는데, 이는 <아침식전동원>이라고 불린다. 농촌지원전투는 모내기, 김매기, 추수기 때 주로 동원된다. 인민반과 가까운 인근지역 건설현장 동원은 건설작업을 하고 있는 돌격대를 지원하며, 돌, 자갈 등의 공사자재를 현장에 주로 운반한다. 인민반장은 동원에 불참하는 세대에게 세외부담³³을 부과해야 한다.

3. 주민들의 광범위한 통제와 관리

북한 당국은 인민반을 통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 왔다. 인민반은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의 통제 하에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도, 사상동향의 파악, 외부방문자 감시와 여러 검열이 이뤄진다. 특히 인민반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모두 관리해야 하며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노인까지 모두 일상 생활을 지도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인민반장들이 북한의 내부를 지킨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인민반장은 각 세대를 수시 또는 불시에 방문하여(목욕이나 이발) 위생검열,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관리, 김일성 가계 관련 도서검열, 불온서적에 대한 출판물 검열, 겨울에는 전기와 연탄가스 검열을 주로 한다.³⁴ 이것은 불법적 가택수색에 해당된다. 또한 인민반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사실을 공개하여 비판하도록 되어 있고 사상동향이나 세대주의 도박과 술주정, 양육문제, 부부싸움 등의 가정의 내밀한 사적문제, 직장인의 무단결근, 학생들의 무단결석 등 주민들의 동태파악 등도 인민반장의 관리와 통제영역에 해당된다. 인민반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동네 각 가정을 돌며, 인민반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동향을 동사무소와 담당보안원, 보위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문서에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다.³⁵ 이런 점에서 인민반장은 마을의 모든 세대를 관리 및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³³ 세외부담이란 북한에서 사회동원이나 건설현장 지원에 필요한 원자재나 물품을 인민반에 각 세대 별로 할당하는데, 현금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세대부담(세부담)이라고도 한다.

³⁴ 김연지, “인민반은 북한 주민들의 감시조직,” 『북한』, 통권 546호 (2017), p. 113.

³⁵ 북한이탈주민 K2 인터뷰(2019.12.13., 서울).

또한 북한에서는 이동 및 거주 자유 관련하여 사회주의헌법 제75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북한 당국의 주민이동 제한 정책은 지속해 왔다.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여행증은 치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발급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여행증은 인적사항, 여행기간, 여행목적 등을 기재하는 문서이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만 이동할 때는 보안서를 통해 발급받지만, 지역 밖으로 나갈 때는 인민위원회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북한 주민들은 사적인 여행은 할 수 없으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행증에 그어지는 줄의 색깔은 지역에 따라 모두 다르며, 북한 당국이 자주 색깔을 변경하여 위조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평양과 국경연선지역, 개성 등 특수구역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다. 여행증을 발급받은 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숙박하는 집주인과 함께 그 지역의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숙박등록부에도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여행증이 없는 여행자가 적발되면 ‘비법여행자’로 인민반장이 담당보안원에게 신고해야 한다.³⁶ 또한 여행자가 방문지역의 인민반에 숙박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하다가 적발되면 해당자와 집주인도 연대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인민반의 가구별 검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숙박검열이다. 숙박검열은 식구가 모두 집에 있는지, 숙박등록자 이외의 숙박자가 있는지 찾아내고,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 없이 이뤄진다. 인민반장과 담당 보안원은 보안서의 지침에 따라 야밤이나 새벽에 숙박검열을 함께 진행한다. 그 이유는 인민반장은 동네 주민들의 얼굴을 모두 알기 때문에 보안원에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거나 비상경계령이 내리면 불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살인사건이 발생했거나 유력인사가 탈북한 경우에는 전국 동시에 숙박검열이 이뤄지기도 한다. 한밤중에 불쑥 밖에서 “숙박검열 나왔소”라고 소리 치면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가정의 식구들을 숫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베란다, 이불장, 장롱, 다락, 이불속까지 무차별적으로 뒤진다.³⁷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주민들이다. 각 가정의 사적 공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공권력이 사적영역까지 개입되어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³⁶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0』, p. 106.

³⁷ 북한이탈주민 K2 인터뷰(2019.12.13., 서울).

IV. 김정은 시대 인민반 조직의 특성

1. 인민반장의 권한 강화

먼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40세대였던 인민반의 규모를 20~25세대로 재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인민반장이 관리해야 하는 세대수를 축소하여 효율적인 밀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체제 이전에는 형식적이지만 인민반장을 인민반의 주민들이 선출했다면,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지명형식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⁸ 또한 이전 시기에 인민반장이 다른 생업도 같이 하면서 인민반장도 병행했던 것이 가능했다면, 김정은 정권이 되면서 장마당에서의 장사나 다른 생업으로 인해 인민반 사업을 대충했던 인민반장들은 대거 교체 되었으며, 인민반 사업에만 집중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주민들 중에서 인민반장을 선출한다. 최근 북한 당국은 성분이 좋지 않거나 탈북 가족이 있는 주민들도 인민반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민반장들이 많이 교체되었죠. 이전에는 당성이 높고, 좋은 집안의 가두여성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집안형편을 걱정하지 않고, 인민반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성들을 인민반장으로 뽑아요. 탈북가족으로 분류된 주민들 중에서도 인민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어요. 탈북자 가족은 탈출할 수가 있어 계속 감시해야 하지만 보위원이나 보안원들이 인민반장 집에 수시로 방문하기 때문에 일부러 인민반장을 시킵니다.”³⁹

이는 성분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인민반장을 맡게 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 감시에 훨씬 유용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인민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민반장의 권위를 세우고 그들의 의욕을 높이고자 여러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인민반장들의 월급을 인상하고 연로보장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인민반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³⁸ 김준호, “(북·중 접경을 가다)하루 24시간도 모자라는 김정은 정권의 인민반장,” 『북한』, 통권 577호 (2020), p. 99.

³⁹ 북한이탈주민 Y 인터뷰(2020.1.8., 서울).

“김정은 정권에 들어오니까 인민반장들이 식량배급량도 800g로 늘어났고, 월급도 4,000원으로 노동자의 월급과 비슷하게 되고, 연료보장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민반장이 되면 혜택들이 생겼어요. 각종 검열이나 물자지원과 세대부담에서도 인민반장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민반장 선출 때 자리를 두고 싸움이 일어나서 보안원이 나오기도 합니다.”⁴⁰

또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태가 수상하거나 비사행위로 적발된 주민들을 신고한 인민반장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격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⁴¹ 이는 인민반장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인민반장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인민반장이 장사를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당국이 봐주기도 한다.

“인민반장들이 비법행위나 비사행위가 적발되어도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국경지역의 인민반장에게는 타 지역의 친척이 있으면 여행증을 쉽게 발급해 줘요. 또 인민반장들도 장사를 하다가 걸리게 되더라도 많이 봐줍니다.”⁴²

이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오면서 국가적 차원의 노동력 동원이 계속 증가하고, 모든 사회적 과제가 인민반 조직으로 하달하게 되면서 이전 김정일 정권보다 인민반장의 권한과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인민반에서 늘어나고 있는 여러 동원을 위해서 인민반장의 권위를 높여줬어요. 인민반장들이 가히 보안원 간부들과 비슷한 대접을 받을 정도니까요. 예전에는 인민반 반장이라고 해봐야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요즘엔 보안원 간부급처럼 대우를 해주는 분위기이어서 인민반장 자리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주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자리가 되었어요.”⁴³

⁴⁰ 북한이탈주민 H 인터뷰(2020.1.14., 서울).

⁴¹ “북, 탈북 신고자에 포상금 제시,” 『자유아시아방송』, 2016.10.21.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10212016102233.html> (검색일: 2020.8.30.).

⁴² 북한이탈주민 K1 인터뷰(2019.12.11., 서울).

⁴³ 북한이탈주민 K2 인터뷰(2019.12.13., 서울).

1990년대 이후에는 배급제가 중단되면서 인민반 대부분의 주민들이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졌고, 장마당의 장사나 각자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해지면서 북한 전역의 인민반 사업이 침체되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 이후 인민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사기와 의욕을 높임으로써 인민반 사업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다소 해이해졌던 인민반의 조직의 재편성과 기강의 확립을 통해 인민반장의 노력동원과 주민통제를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2. 주민들의 생활통제와 검열의 강화

김정은 체제 이후 인민반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통제와 검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흐트러졌던 인민반의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생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도입하였다. 먼저 북한 당국은 인민반의 주민통제를 위해 경비초소를 설치하고 경비원의 상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전에도 규모가 큰 인민반에 경비초소를 설치했지만,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북한 전 지역의 인민반에 설치되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4개의 인민반이 있었고, 1개의 인민반 가구가 40세대 정도 돼요. 40세대가 4개의 인민반이면 160세대가 사는 동이었는데, 원래 들어오는 출입구는 경비초소가 없었거든요. 김정은이 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4개 인민반에 4개 경비초소를 만들었어요. 경비초소에는 경비원이 상주해서 동네에 드나드는 주민들의 행동, 외부 방문자가 오면 누구 집에 온 손님인지를 심문하고 감시를 해요.”⁴⁴

인민반 경비초소의 경비원은 외부인의 출입통제와 방문자의 신원을 체크하여 방문자의 명단을 인민반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인민반 경비초소에는 경비원은 2~3명으로 인원을 증강시키고, 밤낮으로 근무하는 24시간 근무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이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지, 외부 방문자가 출입하면 단속하여 공민증의 검열과 심문을 한다.⁴⁵ 최근 북한 당국은 인민반의 경비초소의 경비강화를 통해 도둑, 범죄자, 불순분자에 대해서 통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각 인민반에서는 경비초소의 경비비용을 두고 인민

⁴⁴ 북한이탈주민 M 인터뷰 (2019.12.19., 서울).

⁴⁵ 북한이탈주민 Y 인터뷰 (2020.1.8., 서울).

반장과 주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⁶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는 2012년부터 인민반에 매일 점검을 새롭게 도입하고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민반의 매일 점검은 인민반장들이 각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세대원들의 인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에 없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기록하여 곧바로 동사무소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 당국은 “인민반 매일 점검체계는 더욱 악랄해지는 적들의 책동과 내부 불순분자들의 파괴 행위로부터 우리 인민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⁴⁷ 북한 당국은 인민반장에게 주민동향을 매일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과 동요의 차단과 이탈자의 색출을 통해 주민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국경지역의 인민반에서는 탈북자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비상 연락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비상 연락체계는 주변 마을의 인민반장들 간에 수시로 연락하여 수상한 행동과 이상한 동향이 있는 가구들을 파악하며, 감시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신속하게 보위성에 보고하는 그물망 체계라고 할 수 있다.⁴⁸ 이처럼 보위성은 인민반 안에서 탈북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주민과 수상한 낌새가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 마을의 인민반장뿐 아니라 주변 마을의 인민반장까지 동원해서 동태를 파악하여 보위성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인민반장이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경계심이 없도록 접근하여 탈북 가능성이 포착되면, 보위 부원들이 해당 가구를 수색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는 체계이다. 이런 감시를 보다 더 용이하기 위해서 인민반장 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는 김정은 체제 이후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탈북자나 남한에 친척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감시뿐만 아니라 도청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⁴⁶ “북 주민들, 경비비용으로 갈등,” 『자유아시아방송』, 2015.5.1. <https://www.rfa.org/korean/in_focus/securityguard-05012015101709.html?searchterm:utf8:ustring=%20EC%9D%B8%EB%AF%BC%EB%B0%98%20EA%B2%BD%EB%B9%84> (검색일: 2020.8.20.).

⁴⁷ “北, “인민반에 주민 동향 매일 점검하라,” 『노컷뉴스』, 2012.9.13. <<https://www.nocutnews.co.kr/news/966721>> (검색일: 2020.8.20.).

⁴⁸ “북한, 탈북 차단 위해 인민반장 ‘비상연락체계’ 구축,” 『데일리 NK』, 2014.2.21.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D%83%88%EB%B6%81-%EC%B0%A8%EB%8B%A8-%EC%9C%84%ED%95%B4-%EC%9D%B8%EB%AF%BC%EB%B0%98%EC%9E%A5-%EB%B9%84%EC%83%81/>> (검색일: 2020.8.20.).

“아버지가 중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인민반장이 아버지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지 계속 감시와 미행을 했어요. 남한에 친척이 있으면 그 세대는 꼬리가 붙어서 계속 동향을 주시했어요. 인민반장이 집에 노크를 해서 사람 수를 수시로 확인했어요.”⁴⁹

한편 김정은 체제 이후 인민반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통제는 더 철저하고 집요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비사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민반 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 개최되었던 것이 거의 매일 열리고 있으며, 인민반장은 주민들에 대한 소비지출(경제수준)의 상시적 검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국영기업이나 공장, 협동농장, 기업소 등 자신이 소속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비공식경제의 비중이 점점 증가된 상황에서 인민반장이 주민들의 소비지출의 감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다.

“인민반장은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면서 누구집의 아내가 장마당에서 파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남기는지, 누구집 밥상에 어떤 반찬들이 올라가는지, 누구집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등 형편을 살피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누구집이 벌이에 비해 돈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감시대상이 되면서, 인민반장은 주민들의 경제수준을 살피고 위에 보고를 합니다.”⁵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북한의 전력사정이 한층 더 심각하다 보니 인민반장의 전기검열 단속도 더 강화되고 있다. 인민반장이 각 세대마다 갑자기 들이닥쳐 금지한 전기용품을 발견하면 바로 압수하며, 벌금부과와 더불어 주변 이웃집까지 전기를 차단시키는 연대 책임을 지우는 등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인민반장이 전기검열을 불시에 단속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인민반장이 수시로 전기용품 검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졸여요. 겨울에는 사람들이 너무 추워서 비법으로 금지한 전기용품들을 집에서 많이 써요. 그런데 인민반장과 전기검열원들이 집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 줘야 해요. 빨리 열지 않으면

⁴⁹ 북한이탈주민 Y 인터뷰(2020.1.8., 서울).

⁵⁰ 북한이탈주민 H 인터뷰(2020.1.14., 서울).

전기검열이 더 까다로워져요. 겨울에 몰래 전기용품을 많이 썼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항상 조마조마 했어요.”⁵¹

또 최근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은 각 인민반에 중국산 전력 적산계기(전기계량기)를 새로 설치해 전력소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인민반에 한정된 전력 사용량을 초과하면 종합전기선을 끊어 전력공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민반에 배당된 전력소비량을 초과하면 무조건 송·배전소에서 한 달간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⁵² 그렇다보니 인민반장은 전기사용에 대한 검열을 더 강화하고 있으며, 인민반의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전기를 덜 먹는 조명등으로 바꾸라고 하거나 집집마다 불필요한 전기를 끄라고 지시하는 등 전기검열에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거의 매일 인민반의 검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간부도 예외일 수가 없을 정도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⁵³ 특히 남한방송, 남한 녹화물 등 황색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인민반에서는 보위원들을 비롯한 검열그루빠가 불시에 집으로 들이닥치며, 만약 검열원이 문을 두드리고 바로 열지 않으면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집들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검열을 하고 있다.

3. 각종 과제와 사회동원의 확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모든 사회적 과제와 각종 동원이 공장과 기업소 중심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는 평양전선공장을 비롯해 2014년부터 일부 단위들에서 생산책임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최근에는 모든 기업소와 공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생산책임제는 국가계획경제가 아닌 각 공장과 기업소에서 생산할 상품과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생산품 수익의 30%를 국가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각 공장이나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 공장의 모든 재산을 주식으로 발행하여 소속 종업원들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방식으로 생산책임제를 도입했지만, 북한은 공장과 기업소의 모든 재산을 국가 소유 형태로, 생산물과 생산량만 자체로 배정하도록 조치하였다. 김정은 체제 이후 생산책임제의 도입으로

⁵¹ 북한이탈주민 J 인터뷰(2020.1.16., 서울).

⁵² “北, 전력난에 중국산 계량기 설치해 전력소비 제한.” 『세계일보』, 2016.6.29. <<http://www.segye.com/newsView/20160629000700>> (검색일: 2020.8.20.).

⁵³ 북한이탈주민 Y 인터뷰(2020.1.8., 서울).

공장과 기업소를 통한 사회적 동원과 세외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힘들게 되면서 인민반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⁵⁴ 이렇다 보니 공장, 기업소의 간부보다 훨씬 더 인민반장이 힘 있는 직책으로 여긴다.

“김정은 정권이 되면서 여러 동원이 인민반에 전부 다 할당되었어요. 그래서 인민반장이 모두 지시하고 작업량까지 직접 할당해 줬어요. 인민반으로 모든 노력동원과 경제과제가 몰리면서 인민반장의 권세가 높아졌어요. 인민반장은 세외부담을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을 합치면 어지간한 돈벌이보다 나아요.”⁵⁵

김정은 체제 이후 계속되는 대북제재의 여파와 경제난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인민반의 사회적 과제수행과 각종 노력동원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인민반의 동원은 탄광, 발전소, 철길, 도로, 살림집 등 다양한 전국 대규모 건설장의 전역에 걸쳐 투입되고 있으며, 세외부담의 비용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민반의 주민들은 찍하면 동원되는 처사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국가가 살림집, 발전소, 도로, 탄광 등 대형 건설 사업을 많이 벌여놓아서 주민들이 매일 온갖 동원으로 겪는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동원에 빠지면 인민반회의에서 캐물어 못나간 주민들은 세외부담을 무조건 내야 해요.”⁵⁶

최근에 경제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인민반의 사회동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으며, 돈주나 장마당의 장사 때문에 못나가는 사람들이 삭별이꾼(일일 노동자)에게 돈을 주고 동원에 내보내는 경우도 등장한다. 이에 따라 인민반의 사회동원은 점점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형편이 좋은 주민들은 얼마든지 사회동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동원에 무조건 참가할 수밖에 없으며, 돈이 있는 사람들의 몫까지 노동을 해야 하기에 점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⁵⁴ “北, 사회적 과제, 동원, 인민반 중심 주민통제 강화, 기업소 생산책임제와 관련,” 『서울평양뉴스』, 2018.1.18.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7>> (검색일: 2020.8.20.).

⁵⁵ 북한이탈주민 L 인터뷰(2019.11.20., 서울).

⁵⁶ 북한이탈주민 M 인터뷰(2019.12.19., 서울).

“인민반의 주민들은 농촌이나 건설현장에 동원령이 떨어지면 모두 가서 집단노동을 해야 합니다. 돈이 있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식별일꾼을 대신 내보내고, 집에서 놓고 있고, 돈 없고 힘없는 애꿎은 사람들만 무조건 동원되니까 뒤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⁵⁷

심지어 현재 건설 중인 삼지연시 건설현장에 평안북도와 양강도 각 지역의 인민반장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차출되어 노력동원을 보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⁵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 당국은 과제만 내리고 중앙의 지원 없이 모든 건설 사업에 해당 구역의 주민들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무조건 관철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의 대부분의 인민반은 건설현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으며, 만약 불만을 표시하거나 저항할 경우, 사법기관이 나서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므로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두여성들은 해당 과제를 무조건 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되면서 인민반 동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무조건 동원 나와라, 무조건 세대부담을 내라고 해요. 만약 거절이나 불만을 표시하면 장사를 못하게 걸고 막아요. 내가 살았던 개천시의 한 여성이 세대부담을 못 내겠다고 버티다가 보안원의 단속으로 장마당에 못나가게 됐어요.”⁵⁹

최근 북한 당국은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농촌지원, 군대지원에 드는 비용과 물자들을 모두 인민반 중심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다 보니 세대별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률이 지체되면서 인민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분담하고 있으며, 식량, 건설자재, 부식 등 품목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집안 살림인 냄비, 부지깥이 등도 내라고 강요받고 있다. 인민반의 세외부담도 점점 가중되어 금전적인 부담은 도를 넘고 있으며, 만약 인민반에서 물자들을 다 채우지 못하면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사서라도 내야 한다. 주민들은 과중한 세대부담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할당된 물자를 납부한다. 그렇다보니 인민반장과 주민들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⁵⁷ 북한이탈주민 K1 인터뷰(2019.12.11., 서울).

⁵⁸ “北, 시·군 인민위원장 모아 인민반장들 삼지연 동원보내라 지시,” 『데일리NK』, 2019.6.7. <<https://www.dailynk.com/北-시·군-인민위원장-모아-인민반장들-삼지연-동원/>> (검색일: 2020.8.20.).

⁵⁹ 북한이탈주민 K2 인터뷰(2019.12.13., 서울).

“인민반장은 상납장부를 들고 다니며, 매일 집집마다 냄비, 부지깥이, 삽, 곡괭이, 못, 용접봉, 장갑, 비누, 세면수건을 내라고 못살게 굴어요. 거기 있을 때 각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돌격대들의 식량과 모래자갈, 식량, 김치, 된장 등을 인민반에서 다 내었어요. 집에 없는 물품들도 많아서 돈으로 내던가 아니면 장마당에서 사서 내요. 이른 아침부터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뭐내요’, ‘돈내요’라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원수처럼 되기가 일쑤죠.”⁶⁰

이처럼 김정은 체제 이후 국가의 재정난과 경제적 자원의 부족한 면을 인민반 조직의 최대한 활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의 인민반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사회적 과제수행과 각종 국가건설의 노동력 동원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인민반의 과제수행과 노력동원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선전하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V. 결론

북한의 주민들은 전 생애과정 동안 여러 조직들에 소속되어 일상화된 강제라는 상황에서 규범적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무적으로 자동 가입되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민반이다. 북한의 인민반은 남녀노소, 계층, 간부, 당원 등에 상관없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포괄하며, 가장 규모가 크고 중대한 역할을 하는 기초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은 1973년에 5호담당제의 전환에 의해 제도화 되었으며, 당정책과 국가사업을 관철하고 집행하는 각급인민위원회의 최말단 기초조직이다. 인민반은 인민반장과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담당지도원 그리고 인민반 각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민반장은 해당 인민반의 행정, 국가사업과 노동당 정책을 집행하는 총책임자이자 주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감시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인민반의 주요 역할은 먼저 마을 단위로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주택의 구조 속에서 공동체주의를 실현하며, 인민반 내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공식 관리를 하는 공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주민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연대감이 형성되면서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관계

⁶⁰ 북한이탈주민 H 인터뷰(2020.1.14., 서울).

이다. 두 번째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이바지를 위해 자발성과 헌신을 강조하며, 인민반은 노동당에서 하달되는 유희자재모우기, 외화별이사업, 동네와 거리꾸리기 과제 등의 각종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고, 군대, 농촌, 건설현장 등에 지원대상과 시기별로 물자지원 등을 해야 하며, 농촌, 주변 지역 건설현장의 사회 동원을 한다. 만약 세대별로 부과된 지원물자를 내지 못하거나 동원에 불참한 경우 세외부담을 통해 현금을 대신 내야 한다. 세 번째, 인민반은 인민반장을 통해 해당 구역의 주민들을 모두 관리하며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노인까지 모두 일상 생활을 지도하고 통제한다. 인민반장은 주로 숙박검열을 통한 외부방문자 감시, 각 세대의 (목욕이나 이발)위생검열,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 관리, 불온서적의 출판물 검열, 전기검열, 각 가정의 양육문제와 부부싸움 등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도와 일상통제를 책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배급제가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월급으로 생활 하기가 어려워졌고, 장마당의 장사나 각자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해지면서 북한 전역의 인민반 사업이 침체되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 이후 먼저 기존의 40세대 였던 인민반의 규모를 20~25세대로 재편성을 함으로써 인민반장이 관리해야 하는 세대수를 축소하여 밀착 관리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침체된 인민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민반장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이 인민반 사업에 집중하고 의욕을 높이고자 월급을 먼저 인상하며, 연로보장, (포상금과 포상품 등) 격려금 지급 등 여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인민반은 주민들의 생활통제와 검열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먼저 경제난 이후 유명무실해진 경비초소를 북한 전 지역의 인민반에 설치하여 경비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24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인민반장이 매일 각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세대원들의 인원을 점검함으로써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이탈자를 색출하여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북한 당국의 인민반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통제는 더 집요해지고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비사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민반 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 개최되었던 것이 거의 매일 열리고 있으며, 검열그루빠를 통한 인민반 검열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전력사정이 더 심각하다 보니 인민반장의 전기 검열 단속도 더 강화되고 있으며, 장마당의 활성화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소비 지출의 상시적 검열(경제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생산

책임제의 도입으로 모든 사회적 과제와 각종 동원이 공장과 기업소 중심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계속되는 대북제재의 여파와 경제난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인민반의 사회적 과제수행과 각종 노력동원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농촌지원, 군대지원에 드는 비용과 물자들을 모두 인민반 중심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인민반의 사회동원은 탄광, 발전소, 철길, 도로, 살림집 등 다양한 전국 대규모 건설장의 전역에 걸쳐 투입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당국은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률이 더디면서 인민반은 거기에 필요한 자재와 비용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 또한 인민반의 세외부담의 비용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국가 재정난과 부족한 사회적 자원을 대신 해서 인민반 조직을 강화하여 체제유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출: 10월 13일 ■ 심사: 10월 20일 ■ 채택: 11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김석향.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교육원, 2004.
-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 북한연구소편. 『北韓社會論』. 서울: 북한연구소, 1977.
-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이규창.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정비와 체제유지』.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이제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2017.
- 이항구. 『북한의 현실』. 서울: 신태양사, 1988.
-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통일교육원. 『북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 서울: 통일교육원, 2012.

2. 논문

- 강지연. “우리 인민반: 눈물로 쓴 탈북민 수기.” 『북한』. 통권 516호, 2014.
- 김승철·박선영. “평양시 인민반 운영실태와 주민생활.” 『북한』. 통권 412호, 2006.
- 김연지. “봄을 맞는 북한 주민들의 삶.” 『북한』. 통권 544호, 2017.
- _____. “인민반은 북한 주민들의 감시조직.” 『북한』. 통권 546호, 2017.
- 김준호. “(북·중 접경을 가다)하루 24시간도 모자라는 김정은 정권의 인민반장.” 『북한』. 통권 577호, 2020.
- 임도빈 외.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두텁게 이해하기-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2.
- 조병영. “북한의 주민통제정책.” 『순천대학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7권, 1988.
- 홍범식. “평양시 대동강구역 청류3동 53 인민반을 찾아서: “우리야 한 식솔이나 같은 걸요.” 『민족21』. 통권 44호, 2004.

3. 기타 자료

- 『로동신문』.
- 『세계일보』.

- 국정원 <<https://www.nis.go.kr>>.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
- NK 조선 <<http://nk.chosun.com/>>.
-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
- 서울평양뉴스 <<http://www.spnews.co.kr/>>.
-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

Abstract

A Study on the Neighborhood unit in the Kim Jong-Un Era

Bae, Young-Ae

This paper's aim analyzes how neighborhood unit was activated and operated in the Kim Jong-un era and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nges of neighborhood uni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eighborhood unit is an organization that automatically joins North Koreans from birth to death and includes all people regardless of gender, age, class, or status. The neighborhood unit is the base organization that enforces the policies of the party and the state, and it strictly manages the details of the private realm, the space where the daily lives of the residents permeate, by public authority. The neighborhood un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system, including communal formation and formation of solidarity, social tasks and social mobilization from the Party and state agencies, and daily management and control of residents. In particular, the Kim Jong-un regime reorganized its organization by reducing the size to revitalize the projects of the neighborhood unit. In addition, the leader of the neighborhood unit is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such as a salary increase and payment of encouragement in order to focus on the neighborhood unit and increase motivation. Recentl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installed security guard posts of the neighborhood unit in all regions to implement a 24-hour working system. The neighborhood unit conducts daily inspections, introduction of emergency contact networks and regular inspections of consumption expenditure (economic level) and private activities and through this, the living control of residents is becoming more stringent and persistent. In addition along the production responsibility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all social tasks and mobilization of various efforts have been reorganized and operated from the center of factories and enterprises to the neighborhood unit increasing the economic burden and the mobilization. Therefore Kim Jong-un's regime is trying to maintain the system by making the most of the neighborhood unit organization in place of the 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the lack of economic resources.

Key Words: Neighborhood Unit, Solidarity, Social Task, Social Mobilization, Life Control

